

상으로 되돌아온다. 긴장 완화 기법은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전자 바이오피드백(생체 자기 제어)은 근육의 긴장, 심장 박동, 혈압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약도 육체적인 반응을 완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고 약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스스로 반응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체력을 비축하라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걷기나 수영, 사이클링, 조깅같이 과격하지 않으면서 오래할 수 있는 리드미컬한 운동을 일주일에 3~4회 정도 시도해본다.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하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니코틴이나 과도한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과 같은 흥분성 음료 등은 삼가도록 한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레저와 학습을 적절히 병행하고 가능하면 여행도 하라. 잠은 충분히 자되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일어나도록 하자.

6)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져라

서로 돕고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한 친구나 인간관계를 많이 맺도록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공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목표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좌절이나 실패, 슬픔도 있을 거라는 것을 계산에 넣어두는 것도 정서적으로 여유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

본지는 2005년 여름호부터 'Blended e-Learning 교수 전략'을 아래의 순서로 소개해 온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 시리즈의 마지막 기획인 'Blended e-Learning에서의 학생 평가 전략'을 다루고 있다.

e-Learning 전략

Blended e-Learning 교수 전략

- I. e-Learning에 대한 잘못된 신화
- II. 강의 유형에 따른 블렌딩 전략
- III. 교수 자료 설계
- IV. 강의 운영
- V. 학생 평가

이해정*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지원부 선임연구원

1. 표절의 유혹에서 학생 구하기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표절에 대한 유혹의 강도도 높아졌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표절과 인용의 차이, 그리고 표절에 대한 강의자의 방침이나 온라인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인가를 복사하는 것은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1) 표절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알리자

자신의 글을 쓰면서 분명히 남의 글을 인용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빼앗고(剽) 도둑질한다(竊)'는 의미의 한자어인 표절(剽竊)의 사전적 의미는 '시나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남의 작품 내용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으로서 글 도둑질, 글 훔치기'이다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남의 글을 가져오면 남의 글을 몰래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럼으로써 가급적 자신의 아이디어로 글을 서술하되, 타인의 개념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인용 사실을 밝히도록 유도한다

2) '과제 보증서'를 요구해보자

이는 과제 수행에 대한 학생의 윤리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인용과 표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에서 증언을 하기에 앞서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는 것처럼, 형식이라 할지라도 과제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표절에 대한 양심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제 보증서

- 이름:
- 소속:
- 학번:
- 과제명:
- 과제 수행 방법:
- 본 과제물만의 독특성:

본인은 본 과제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였으며,
타 자료의 인용은 반드시 출처를 언급하여 정당하게 수행하였음을 보증합니다.
(※ 위의 문장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3) 자신의 말로 기술하도록 유도해보자

수업시간 중의 발표나 제출해야 할 과제에서 자신의 말(your own language)로 기술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과제나 시험문제도 자신의 말로 기술하는 형태로만 제출하도록 한다. 표절하는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예컨대 '○○○의 개념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시오'라든가, '○○○의 원리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시오', 혹은 '○○○에 대한 이론을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해보시오' 등의 문제에서는 표절을 했을 경우 문제 자체가 초등학교생이나 친구에 대한 어투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이 된다. 이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사전에 주지시키면 커닝의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

2. 성찰을 통해 학점 업그레이드하기

학기말 과제 보고서를 받아보면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것은 한 학기 동안 배운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중간에 피드백을 줬더라면 완성도가 좀더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하기도 한다

Blended e-Learning을 활용해서 정해진 시기별로 과제를 누적 게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자. 그것은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이때 과제를 버전별로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과제 보고서를 올릴 때 게시판 제목에 몇 번째 수정한 과제인지에 대한 버전을 적도록 하면 일자별 관리가 쉬워진다. 다음은 과제를 버전별로 게시하게 했던 한 교수자의 소감이다

Blended e-Learning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인데, 제 수업도 과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인의 과제물에 대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해오라고 하면 같은 과제인데 향상이 됩니다. 그 향상 정도를 보고 B+, 또는 A학점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것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도 한 차례 리포트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개선을 하고 향상을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장치입니다.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으니까요.



3. 성실한 학생과 불성실한 학생 구별하기: 무임승차 방지법

조를 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원들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조원이 반드시 있곤 한다. 개인 과제라면 본인의 책임임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공동 과제의 경우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학생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열심히 한 학생과 무임승차한 학생을 가려내는 것은 일관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는 교수자의 기본 의무이다. 여기에서는 이들을 가려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1) Peer Evaluation

‘동료 평가’ 방법은 대단히 유용하다. 과제를 같이 수행한 팀원들 중 누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는 해당 팀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학기말이나 팀별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동료들과 자신에 대한 평가(Peer/self evaluation) 양식을 주고 이를 작성하여 교수자 개인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게 하면, 팀원 내에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기여도가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간혹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점수를 낮게 주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동료를 평가한다. 동료들의 평가는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특히 다수의 동료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거나 혹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학생의 경우는 학점에 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Self Evaluation

동료 평가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보자. 같은 양식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상대적·절대적으로 점수 매기게 하는 방법이 그것인데, 상대적인 평가는 위의 동료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점수 매기게 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평가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학점을 적어보라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스스로에게 A+를 주지 않는다. 동료들보다 높은 점수도 주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My Contribution Report

'나의 기여도'를 모두에게 공개하게 하는 전략도 적용해볼 만하다
 'My Contribution Report'는 자신이 팀별 프로젝트나 과제에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다 이때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쓸 것이 없는데,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서 보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유념할 점은 이러한 평가 방식을 학기 초에 분명히 공지해야 한

Peer/Self Evaluation Form의 한 예

PEER/SELF EVALUATION FORM

Please rate yourself and your team members on the relative contributions that were made in preparing and submitting your group project. **Your ratings will not be disclosed to other students.** Be candid in this evaluation! Return this to your instructor by email, when finished.

In rating yourself and your peers, use a one to five point scale, where **5=Superior; 4=Above Average; 3=Average; 2=below average and 1=weak**.

Insert your name in the first column and your peers' names in the remaining spaces with one name at the top of each column.

Names	You	Peer:	Peer:	Peer:	Peer:
Participated in group project or meetings					
Helped keep the group focused on the task					
Contributed useful ideas					
Quantity of work done					
Quality of work done					
	+	+	+	+	
Enter total scores here					

Self Grading for your own job through this course : (A+, A, B+, B, C, C+, D+, D, F)

Comments (add anything that would be benefit to your group or future groups in this course):

다는 것이다 팀 전체의 점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팀 구성원 모두의 학점이 동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에 동료들의 평가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학기 초에 공지하고 무임승차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서로가 평가자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